

“일흔 넘어 신곡 ... 난 행복한 사람”

데뷔 50주년 가수 김세환

19년 만에 앨범 ‘올드 & 뉴’
“트로트 도전
변화 없으면 발전도 없죠
다시 태어나도 노래하고파”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 젊은 날, 김정구 선배가 신곡 취입한 느낌 아닐까요. 하하.” 가수 김세환(71)은 신곡을 낸 것이 까마득한지 “축히 35년은 더 된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일흔살이 넘어 신곡을 낼지 몰랐다”는 말끝엔 부드러운 미소가 따라왔다. ‘사랑이 무엇이나/ 무엇이 사랑이더냐’. 입에 붙은 신곡 가사도 콧노래처럼 흥얼거렸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김세환이 정규 앨범 ‘올드 & 뉴’ (Old & New)를 발표했다. 앨범 출시는 2000년 두 장의 리메이크 앨범 ‘리멤버’ (Remember) 이후 19년 만이다. 신보에는 신곡 4곡과 1970년대 정바지와 통기타 세대를 사로잡은 히트곡 4곡이 자리했다.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난 그는 “녹음실에 들어가니 설레면서도 긴장됐다”며 “녹음 며칠 전부터 소금물 먹으며 목관리를 잘 했는데 막상 부르러니 목이 잠기더라. 굉장히 당황했다”고 떠올렸다.

마음먹기는 어려웠지만, 신곡을 내기로 작정하자 의욕이 생겼다. 선곡에 공을 들이며 2곡짜리 싱글 계획은 앨범으로 확장했다. 몇몇 작곡가들은 그에게 젊은 날의 연장선인 이지 리스닝 계열 포크 곡들을 건넸다. 그는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만든 작곡가 정기수에게서 팝 트로트 곡 ‘사랑이 무엇이나’를 받고서야 무릎을 쳤다. “이런 곡이 재미있지” 50년 만에 처음 트로트에 도전한 계기다.

“(트로트에 대한) 선입견요? 그런 건 없어요.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입을 안 부

르나요? 하지만 고집하는 것은 아깝지요. 전 모든 장르에 열려 있어요.”

반세기 음악 인생의 지렛대가 돼준 대표곡들은 정갈한 기타 사운드다 다시 편곡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Simple is the best)란 생각에서다. 그중 ‘사랑하는 마음’, ‘길가에 앉아서’, ‘비’는 각각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등 세시봉 멤버들이 만들어준 명곡이다.

무교동 음악감상실 세시봉 형들과 유대는 청년기로 거슬러 간다. 김세환은 세시봉 대신 명동 오비스캐빈 무대에 주로 올랐지만 두 무대를 섭렵한 윤형주, 송창식 등과 어울리며 무리의 ‘막내’가 됐다. 조영남은 책 ‘세시봉 시대’ (2011)에서 그를 ‘일상이 화보인 도련님’이라고 기억했다.

처음 인연은 연세대 의대에서 경희대로 옮긴 윤형주였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김세환은 1969년 TBC 대

학생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가요계에 입문했다. 당시 수상하진 못했지만, 대학 축제에 초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만난 학교 선배 윤형주의 제안으로 1971년 MBC 라디오 ‘이중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출연했다. 딱히 부를 곡이 없던 그는 비디스의 ‘돈트 포갓 투리멤버’ (Don't forget to remember)를 노래해 단박에 청취자를 흥시켰다.

이후 그는 ‘옛친구’로 1972년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상을 받았고, 1974-75년 연속 MBC 10대 가수상과 TBC 7대 가수상을 거머쥐며 스타 대열에 올랐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물 흐르듯 순탄했다. 그는 “가요사에 미안할 정도로 저같이 고생 안 한 가수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했다. 무명이 짧았고, 온 좋게 세시봉 형들을 만나 좋은 곡을 받으며 거침없이 가수가 됐다. 한동안 세월 따라 짐채기도 있었지

만, 2011년 방송에서 ‘포크 산살’로 세시봉이 재조명돼 지난날까지 형들과 찍어 공연했다.

“통행금지 가 있던 시절 공연이 끝나고 어느 집에 모이면, 형주 형이 ‘길가에 앉아서’를, 장희 형이 ‘비’를 흥얼댔죠. 제가 ‘내가 부르는 게 낫겠다’고 하면 ‘그럼 부르라’고 곡을 줬어요. 녹음 때는 기타도 쳐주고 화음도 넣어주고. 이제 70대가 돼 신곡을 내니, 저는 정말 행복한 가수죠.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에게선 내내 유쾌한 긍정 에너지가 넘쳤다. 평소 “흐름에 따르자”는 삶의 태도 덕이다. 그는 새 앨범도 가수와 작곡가, 음반제작자의 운이 맞아야 하니 결과는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어 웃었다.

“바블 거 있나요. 사부작사부작, 거북이 미라톤을 해보려고요. 그래야 흥분하게 웃으며 노래할 수 있죠. 음악은 제 삶이니까요.” /연합뉴스

‘백종원의 골목식당’ 자극 줄이고 본령 강화

“창업과 장사의 교본 제시”

인기의 정점에서 진정성 의심을 받은 SBS TV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하 ‘골목식당’)이 자극적인 연출을 줄이고 골목 상권 복원이라는 초심을 다잡은 분위기다.

다음 편부터는 지방 특집을 통해 프로그램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내비친 가운데 ‘골목식당’은 위기를 딛고 장수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골목식당’ 만큼 단기간 롤러코스터를 탄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불과 석 달 전 ‘골목식당’은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의 정신적 지주인 백종원 대표가 연예인이 아닌데도 SBS 연예대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큰 논란이 될 정도로 팬들의 지지는 강력했다.

요리를 진숙하게 해주던 백 대표도 ‘골목식당’을 통해 인기 이상의 것들을 얻었다. 요리는 기본으로 장사 노하우까지 모두 공유하면서, 요식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공헌했다. 덕분에 국정감사에서까지 나가서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선생님’ 같은 백 대표의 솔루션과 그 솔루션에 따른 가게의 성공에 열광한 시청자들은 감초 역할이던



‘약당’들이 주연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피로감을 느꼈다.

약당이 된 식당 사장들은 개인 채널로 제작진의 연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이어졌다.

백 대표와 제작진이 모색한 또 하나의 돌파구는 ‘지방’이다. ‘골목식당’은 회기동 벽화마을 편 이후 다음 달부터 경남 거제로 배경을 옮긴다. ‘골목식당’이 그동안 지방을 찾은 적은 대전 중앙시장, 한 번밖에 없었다.

이라고 자신했다.

제작진은 지방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데 대해 24일 ‘방송 1주년’을 맞아 프로그램 확장성을 키울 예정”이라며 “지방 특집도 그 일환이다. 현재 지방 상권이 가진 위기 상황과 더불어 맞춤형 솔루션으로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뉴스

MBC ‘슬플 때 사랑한다’ 시청률 단숨에 10% 돌파

MBC TV 토요극 ‘슬플 때 사랑한다’가 첫 방송부터 10%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부터 4회 연속 방송한 ‘슬플 때 사랑한다’ 시청률은 9.7%~10.5%, 9.7%~9.9%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남편 강인욱(류수영 분)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윤마리(박하나)와 그가 눈에 밝히는 성형외과 의사 서정원(지현우)의 이야기가 담겼다.

남편을 피해 ‘페이스 오프’를 한다는 설정은 SBS TV 주말극 ‘그녀를 말할 것 같

으면’에서 이미 다룬 소재로, ‘슬플 때 사랑한다’가 같은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KBS 2TV 주말극 ‘하느님인 남편’은 33.8%~39.3% 시청률을 보였으며,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는 13.0%~15.7%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tvN 주말극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5.8%(이하 유료가구), OCN 주말극 ‘트랩’은 2.7%, TV조선 주말극 ‘바벨’은 2.768%, JTBC 금토극 ‘리갈하이’는 2.666%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애(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 죄와 벌(재)		00 3.1운동 100주년 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지구촌 어린이들이 희망다하기 (브런치 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MBC PICK X 아이(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나의 독립 영웅(재) 5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모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정벽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문자방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해지(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문물 남도에 살아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애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UHD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특집 나의 독립 영웅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영웅, 이상홍)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재)	00 해지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특선 (크래시드 아이스 시즌 최종전)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보가 폴리
06:00 한국기행(재) <고택의 겨울 1부 불천위(不遷位), 종가의 품격>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9:00 제로미노 스티븐의 모형
07:00 레이디버그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3:00 다큐 오늘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10 고양이를 부탁해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동화(冬話) 1부 겨울 산수화 장지제>
08: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재)	21:30 한국기행 <몽처야 산다 1부 겨울을 부탁해>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21:50 EBS 다크프라이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15 뽀로로 뽀로로	15:15 탐원 구조대	23:55 배워서 남줄(재)
09:30 원더볼스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50 세계의 드라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짝과 팡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48년생 입장을 분명히 해 뒤야만 할 것이다. 60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다. 72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84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87, 10
丑	37년생 심사숙고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남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49년생 전혀 다른 것이나 구분을 잘 해야겠다. 61년생 판국을 뒤집을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73년생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배가되리라. 85년생 손쉽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76, 08
寅	38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립하라. 50년생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62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리라. 74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된다. 행운의 숫자 : 19, 62
卯	39년생 막연히 비교하지 말라. 51년생 미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말썽의 소지가 없다. 63년생 평소 애 잘 관리해 두었다면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함이 무난하다. 87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3, 23
辰	40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52년생 시키지 말고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4년생 형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76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88년생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28, 25
巳	41년생 주변의 성급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53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자꾸 연기 되리라. 65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77년생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만한 영향력이 있다. 89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5, 21

2월 25일(음 1월 21일 쫓바)

午	42년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다. 66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 78년생 느낌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뒤끝이 없다. 90년생 깔끔하게 보완한다면 완전히 구도가 달라지리라. 행운의 숫자 : 82, 37
未	43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55년생 대체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67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79년생 성실으로써 노력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91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74, 93
申	44년생 만남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56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68년생 분주한 과정에 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80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게 하리라. 92년생 현태가 불리하니 전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9, 74
酉	45년생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만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 57년생 관찰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나. 69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공지에 몰릴 수 있다. 81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길하다. 93년생 암언이 떠돌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05, 50
戌	34년생 공돌이였던 것에 씩씩 트는 국면이다. 46년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를 잡으라. 58년생 제 때에 실행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70년생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2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4, 24
亥	35년생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47년생 재미 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59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71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83년생 이제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0,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